

보성 해양테마공원 1단계 사업 이달말 준공

별교 갈대군락지·갯벌에 갈대탐방로·에코센터 갯벌 탐방 데크 등 조성 2020년까지 2단계 사업

‘꼬막동네’ 별교에 짓는 해양테마공원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보성군은 별교갯벌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갈대군락지를 배경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지만 해양테마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이 이달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보성군은 여지만 일원에 90억원을 투입해 갈대탐방로 2870m, 에코센터 600㎡, 휴게쉼터 400㎡, 전망대, 갯벌 탐방 데크 등 해양테마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보성군은 앞서 지난해 1단계 사업에 착수해 갈대탐방로와 나무다리 1곳을 설치



여지만 해양테마공원 조성 1단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갈대탐방로와 나무다리 전경. <보성군 제공>

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갈대탐방로에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해 에코센터와 휴게쉼터, 갯벌탐방로 등을 설치해 환경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은 별교 갯벌을 갯벌 형태에

따라 ‘자연만곡’, ‘바람만곡’, ‘소리만곡’으로 구분하고 인문학과 연계한 스토리를 입혀 환경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해양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인근 중도방죽과 태백산맥테마파크를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로 해양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별교갯벌과 갈대군락지의 자연환경이 만들어주는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이 전해지는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별교갯벌은 2006년 국내 최초 세계람사르 협약 보전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우수한 갯벌 생태환경이 건강해 먹이자원이 풍부하고 여러 수산생물과 철새 등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이곳 연안습지의 갈대군락지는 자연경관이 살아 있고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곡성서 미식축구 연고전 열린다

26일, 장미축제 기간...사회인리그 개막전도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5월 18일~27일)에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미식축구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곡성군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제8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중 대한미식축구협회(회장 남성남)와 공동으로 전국 사회인리그(KNFL) 개막전 경기와 연세대와 고려대의 미식축구 친선전인 ‘로즈볼 미식축구’ 연고전이 열린다고 7일 밝혔다. 미식축구는 화려한 운동복의 매력과 다양한 팀컬러, 여기에 헬멧과 보호장구, 몸과 몸이 부딪치는 거친 숨소리가 더해져 격렬하고 역동적이며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로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첫 경기는 19일 오후 1시부터 곡성 레저문화센터 운동장에서 서울 세비지스와 부산 그리폰즈팀이 치르는 사회인리그 개막전이다.

미식축구 전국 사회인리그(KNFL)는 이번 곡성 개막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대장정에 오른다. 두번째 경기인 ‘로즈볼 미식축구’ 연고전은 오는 26일 정오에 kick오프한다. 로즈볼컵을 두고 싸우는 전통적 맞수이자 오랜 우정을 다져온 연세대와 고려대가 빅매치를 벌인다. 군은 관람객을 위해 미식축구 경기 중간 하프타임 시간에는 치어리딩팀의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고 미식축구 선수와 관람객이 함께하는 포토타임 기회를 위해 색다른 포토존도 운영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미식축구의 뜨겁고 정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장미축제와 조화가 잘 된다”며 “곡성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로즈볼 미식축구에 관심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곡성군민의 날 기념식...군민의 상 한승준·권영태씨

곡성군은 지난 4일 군민회관에서 군민과 향우, 기관·사회단체장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곡성군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군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했다. 옥내 행사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곡성 장미예술단의 식전 난타공연에 이어 군민의 상 시상, 기념사, 축사, 군민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사신> 이날 행사에서 삼남식 곡성군수 권한대행은 “곡성 100년대계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여정에 3만여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곡성군민의 상은 석곡면 한승준씨와 목사동면 권영태씨가 수상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보성군민체육센터 오늘부터 운영 수영장·헬스장 등 회원 모집

보성군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보성군민체육센터’를 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보성군민체육센터는 지난달 24일 개장식을 가진 후 10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다. 보성군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육실, 탁구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다. 수영장 이용 회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15일부터 매주 화, 수, 목요일 3회 강습을 실시한다. 시설이용 요금은 수영장의 경우 1일 성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1500원이다.

월 회원은 성인 5만원, 청소년·군인 4만원, 어린이·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등은 3만원이다. 헬스장은 1일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1000원이다. 월 회원은 성인 3만원, 청소년·군인 2만원, 어린이·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등은 1만원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군 특화작물 석류·유자·참다래 제품개발 탄력

풀뿌리기업 육성 공모 선정 2020년까지 국비 9억 확보

고흥군의 ‘지역웰빙 불로초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사업화지원’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18년 풀뿌리기업 육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불로초’는 석류의 붉은색, 유자의 노란색, 참다래의 초록색의 의미를 함축한 단어로 고흥군의 특화작물인 유자, 석류, 참다래를 이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년 동안 국비 9억 원 지원 받게 된다. 이에따라 군은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인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 박람회, 품평회 등을 통한 유통마케팅 강화와 상품 브랜드화, 지식재산권(특허) 관리화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합지원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군 특화작물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2014년부터 290억 원 규모의 고흥웰빙 유자·석류특구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30억여원을 지원받아 1, 2차 지역 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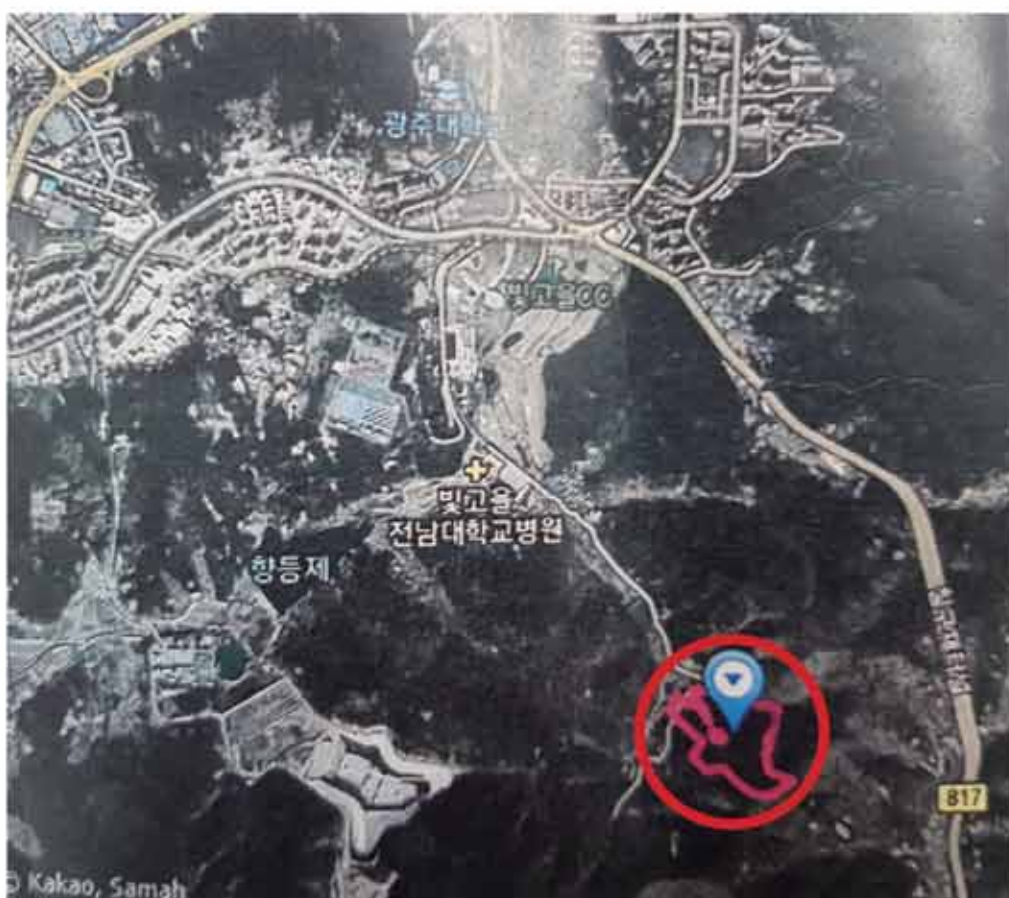


고흥 유자

12·13일 지리산서 기부 챌린지 ‘옥스팜 트레일워커’

걸으면서 건강을 챙기고 기부도 하는 ‘옥스팜 트레일워커’가 구례 지리산에서 펼쳐진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동안 구례지역과 지리산 일대에서 제2회 한국 옥스팜 트레일워커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500여명의 동호인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구례 자연드림파크를 출발해 산수유 자연휴양림, 지리산 정상재, 노

고단, 화엄사, 운조루, 사성암, 백련사 등 100km를 걷는다. 대회 참가비와 기부편당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생수, 위생, 생계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사용된다.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1981년 홍콩에서 시작했으며 4명이 한 팀을 이뤄 38시간 동안 100km를 완주하는 기부 챌린지로서 지난해 구례에서 한국대회가 처음 열렸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35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8-1230